

2018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전망

스마트 헬스케어의 진화



들어가며

21세기 헬스케어 산업에서 품질, 성과 및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헬스케어 산업 이해관계자들은 병원 안팎에서 환자 중심적이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스마트” 헬스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정확히 어떤 모습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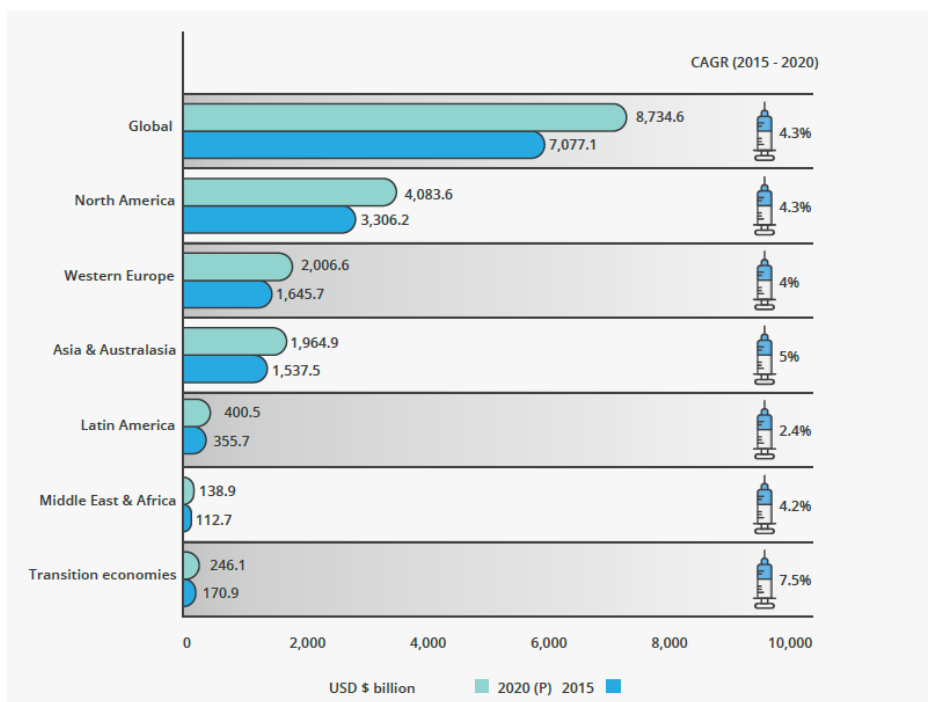
1. 적절한 환자에게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처방
2. 의사들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기술 활용
3. 생태계 전반의 모든 돌봄(care)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활용
4. 환자 데이터가 접근하기 쉬운 하나의 장소에 보관됨
5. 적절한 업무에 적절한 인력 배치(예: 간호사가 행정 업무가 아닌 환자 관리 업무만 수행)
6. 환자들이 치료 계획을 알고 적극적으로 개입
7. 헬스케어를 장소와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한 새롭고 비용 효율적인 모델
8. 효율성 증대 및 낭비 감소

2018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이슈

불확실하고 변화하는 헬스케어 경제에서 이윤 창출하기

재무 성과와 영업이익 개선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여러 공공/민간 헬스케어 시스템들은 몇 년째 매출 압박, 비용 증가 및 마진 정체나 감소를 겪고 있다. 세계 주요 지역의 헬스케어 지출은 2015년 7조 달러에서 2020년 8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 신흥 시장 확대, 의료 기술 발전 및 노동비용 증가로 인해 헬스케어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 헬스케어 지출, 2015-2020



Source: World Industry Outlook, Healthcare and Pharmaceuticals, 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June 2017

인구, 치료법, 인프라로 인한 지출 증가

헬스케어 지출 증가 요인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선진국에서는 계속해서 노인 인구가 주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일본). 방문 증가 및 고품질 서비스 등 돌봄 패턴 변화 또한 주요한 비용 상승 요인이다. 치료법 개선과 의사 및 환자의 요구는 만성적이고 전염성 있는 질병에 대한 더 많은 검사와 개입을 촉진하고 있다. 신흥국에서는 인구 증가, 고소득 가계 증가, 소비자 기대치 상승으로 인해 헬스케어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많은 건강관리 체계는 노후화된 인프라와 기술을 제한된 자원으로 업데이트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쟁을 위한 통합과 협업

헬스케어 제공자들은 마진을 축소하고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시스템 다수는 입원 환자를 늘려 매출을 증대시키기보다 외래 환자를 늘리고 있다. 또한 마진 개선을 위해 기존의 인력계획과 예측분석을 통합하여 인건비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 및 분석 도구 활용 등의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병원과 헬스케어 시스템이 M&A를 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다. 조인트벤처,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및 기타 협업 계약이 헬스케어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병원이 암에 대한 개인화된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바이오 기술 회사와 협업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고려사항

2017년 미국 헬스케어 CEO에 대한 Deloitte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불확실하고 변화하는 헬스케어 경제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음을 제안하였다.

- 수익성 확보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시스템 효율성 향상
- 통합 시스템 운영
- 핵심 병원을 넘어서는 다각화
- 매출 사이클 시스템 개선

Volume에서 Value로 전략적 전환

의료 서비스는 진료별 의료비 지불(fee-for-service, FFS) 모델에서 성과(outcome) 및 가치(value) 기반 지불 모델로의 변화를 지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MACRA(Medicare Access and CHIP Reauthorization Act of 2015)로 인해 가치 기반 모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는데, 해당 법안은 기존의 FFS 보상 방식을 탈피하는 헬스케어 전문가에게 상당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본과 싱가포르 정부도 가치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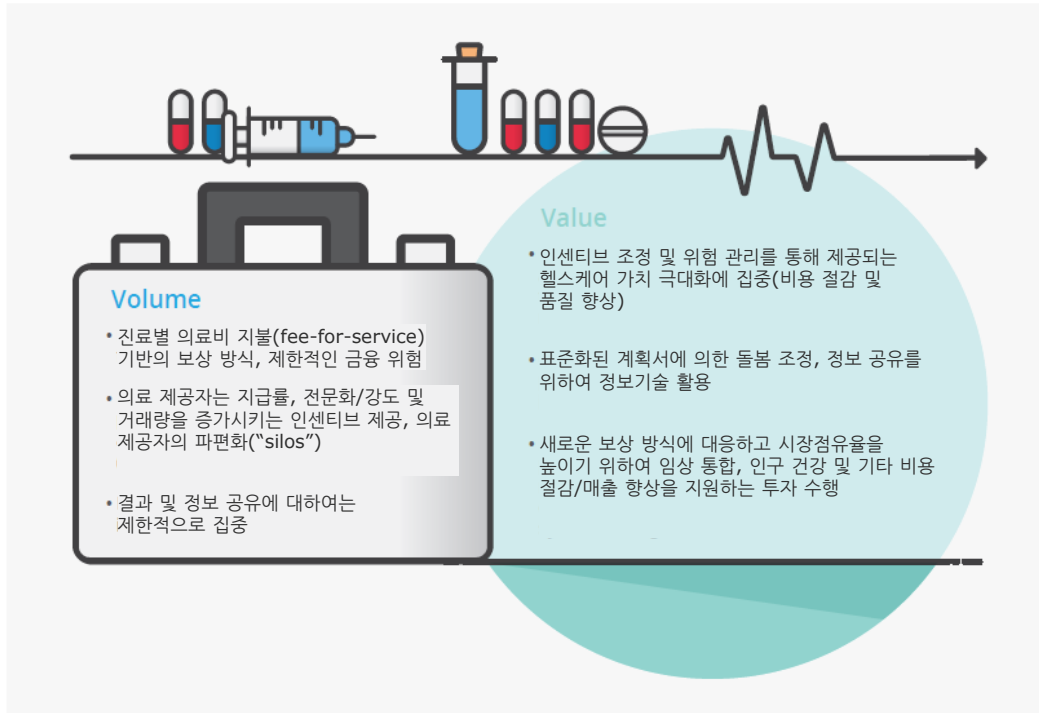
인구 건강 관리와 웰니스(wellness)

산업 이해관계자, 특히 고급 건강관리 시스템은 헬스케어가 “고장-수리” 모델에서 벗어나 일회성 거래기반 치료보다는 예방과 전반적인 인구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헬스케어의 사회적 결정 요인

헬스케어 관계자는 시스템 외부 요소가 개인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오랜 시간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주택 불안정성/홈리스, 기아 및 영양, 교통 수단, 교육, 유틸리티 수요, 대인 간 폭력, 가족 및 사회의 지원, 고용 및 소득이 포함된다.

그림2. Volume에서 Value로의 지속적 전환



건강 정책 및 복잡한 규제에 대응

헬스케어 시장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규제 복잡도가 증가하고, 이해 관계자의 위험 관리 강화 필요성도 커진다.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이 건강 정책 및 규제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지역 및 국가마다 고유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부패에 대비되지 않은 헬스케어 산업 문제, 중국의 경우 불법 시설 의료기관 증가 문제, 일본의 경우 R&D 및 의학 연구 촉진 과제, 미국의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CA)'의 미래에 대한 논쟁 등이 있다.

데이터 관리 및 보안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보다 나은 진단 및 보다 개인화된 치료법에 대한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저장해야 하는 정부, 보건 시스템 및 보험 회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인지 컴퓨팅, 클라우드 기반의 상호 운용 가능한 전자 건강 기록, 사물인터넷(IoT)이 무수한 출처에서 얻은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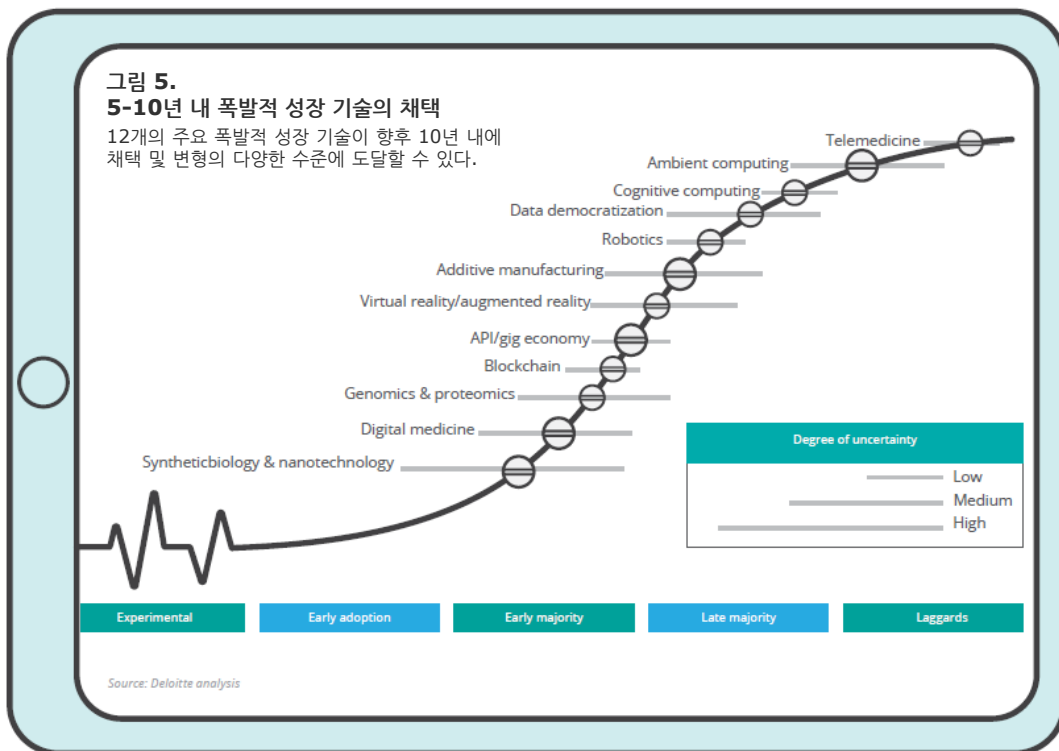
사이버 보안 난제(conundrum)

최근 널리 확산된 WannaCry 공격은 병원과 통신사를 비롯한 수만 개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감염시켰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리스크 관리를 주요 이슈로 만들었다. 헬스케어는 매년 금융 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사이버 공격이 많은 산업이다. 2017년 전세계 헬스케어 데이터 사고의 평균 총 비용은 사건 당 362만 달러에 달하였다.

병원, 건강보험, 생명과학 회사 및 정부의 직원 다수는 재무, 운영, 컴플라이언스 및 사이버 위험 관리에 대한 인식과 학습이 부족하다. 경영진 주도 하에 전반적 정책 변화가 조직의 우선순위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평가를 수행하고 관리, 재무 및 평판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2차 방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비용 절감, 접근성 향상 및 돌봄 개선을 위해 폭발적 성장 기술에 투자하기

헬스케어 산업에 변화가 다가옴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폭발적 성장 기술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고, 효율적이며,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돕고 있다. 1999년 초, 과학자들은 인간 게놈 배열의 첫 초안을 만들기 위해 5개월을 소모하고 약 3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현재 인간 게놈 배열 생성에 드는 비용은 천 달러 미만이며 궁극적으로 1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향후 수년 내에 폭발적 성장 기술이 역사적으로 산업을 정의했던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크게 혼란시킬 수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로봇을 실험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폐, 안과 및 피부 질환에 대한 임상치의 이미징 진단을 지원하기 위해 AI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취합하여 의사와 간호사가 더 많은 환자를 보고 결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하고 있다. 합성생물학, 3D 프린팅과 나노기술, 동반진단, 바이오센서 및 추적장치 등의 분야에서 폭발적 성장기술이 헬스케어 산업을 재편하는 데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내일의 병원을 위한 오늘의 계획

일부 선진국의 인프라 노후화와 신흥국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정부와 민간 의료 제공자는 어떻게 입원 및 외래 환자의 환경을 최적화할지 고민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 접근성 향상 및 환자 돌봄 개선을 위해 기존의 병원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 많은 미국 및 유럽 병원 경영진은 오래된 인프라를 보수하거나 재건할 계획이다. 신흥국에서도 증가하는 헬스케어 수요로 인해 상당한 병원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데이터 및 분석론

헬스케어 조직들이 향상된 디지털 및 인지기술을 활용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발굴하고 임상 및 운영상의 통찰력을 얻고자 하는 상황에서 건강 데이터는 새로운 화폐가 되고 있다. 내부 및 외부 데이터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병원은 인지분석에 의존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딜로이트 리서치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직이 각 이해관계자가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cross-sector 협업 접근법에 아직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헬스케어 혁신 잠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제한적인 데이터 공유 제약을 없애야 한다.

소비자 참여 및 환자 경험 개선

많은 기업가 및 헬스케어 소비자는 환자 경험이 더 개인화되지 않는 이유와 체계가 보다 편리하지 않은 원인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Deloitte의 2017 미국 헬스케어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명확한 소통 및 세심함을 포함하는 개인화된 돌봄이 응답자들의 가장 중요한 헬스케어 우선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방해 받지 않는 민첩한 경쟁자들은 기존 업체들보다 기술 주도적 요소들을 더 빨리 감지하고 활용할 수 있다.

병원은 옴니채널 환자 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객 어플, 환자 포털, 개인화된 디지털 정보 키트 및 자체 체크인 키오스크 등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개인화된 돌봄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더 개입하며 환자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공급자-소비자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 기타 디지털 채널 및 도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환자 경험 개선을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 Telehealth(원격 의료)
- 가상현실/증강현실

미래의 노동력 구성

점점 많은 나라에서 헬스케어 인력 문제를 겪고 있다. 수많은 병원 전문 분야(응급의학 및 노인의학)와 일반 의료 실무에서 보건 인력 부족은 분명한 현상이다. 헬스케어 및 사회복지 양 분야에서 간호 인력은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 로봇틱스 및 기타 자동화 도구는 현재 및 미래의 헬스케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딜로이트 견해에 따르면, 일의 미래(future of work)에는 사람과 일이 결합된 증강 노동력과 기술 발전에 힘입어 보다 생산적이고 보상이 높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는 병원이나 의료 시스템 관점에서 볼 때, 직원 부족과 번아웃으로 인한 사기 저하, 최상위 인력 모집 및 유지에 대한 능력 감소, 돌봄 품질 저하 등의 취약점이 해결됨을 의미한다.

일의 미래를 계획할 때, 헬스케어 조직은 일과 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위해 결합된 요인들을 평가하여 특정 직업과 업무 흐름의 궤도를 산정해야 한다. 또한 유용한 기술과 함께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인재 모델을 활용하여 일의 미래를 계획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 물리적 근접성(현장 근무/가상 서비스 제공)
- 자동화 수준(로봇틱스, 인지기술, AI 및 기타 기술/사람의 수작업)
- 인재 카테고리(정규직/계약/클라우드소싱 등)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TTL”),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for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DTTL and its member firms.

Deloitte provides audit,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management, tax and related services to public and private clients spanning multiple industries. With a globally connected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Deloitte brings world-class capabilities and high-quality service to clients, delivering the insights they need to address their most complex business challenges. Deloitte’s more than 220,000 professionals are committed to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